

어설픈 행정처분에... ‘여수 흑비’ 원인 규명 오리무중

(작년 6월 울촌에 내린 검은 비)

영산강환경청, 수사결과 도출 전 업체 영업정지 검찰 무혐의 종결 처리 이어 행정소송서도 패소 1년 넘게 책임질 사람 없어 피해 주민들만 속앓이

지난해 6월 여수시 농촌 마을을 뒤덮었던 ‘흑비(黑雨)’의 원인 조사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급작스런 검은 비로 농작물 피해 등을 입은 주민만 300명에 달하지만 1년이 넘는 현재까지 책임을 져야 할 원인 제공자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발생 초기 환경부를 중심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규명하겠다고며 부산을 떨었지만 밝혀진 것은 전혀 없어 당시 피해 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6월 여수시 울촌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검은색 모래와 쇠가루로 추정되는 분진이 빗물과 함께 떨어지면서 차량,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울촌산단 내 입주 기업

인 H산업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1개월)을 내렸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영산강환경청,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순천·광양시, 주민대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의 울촌 산단 내 8개 업체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린 조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H사 매립지와 검은 비 시료에서 검출된 흑연 등의 결정 구조가 일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피해 주민들은 해당 업체의 과실이 신속하게 밝혀진 만큼 그동안 입었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다.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증거불충분’을 주된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흑비’로 인해 주변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현상이 보존되지 않아 확인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으로 분진이 이동했는지조차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다.

영산강환경청의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은 최근 해당 업체가 영산강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산강청이 H사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에다 검은 비가 일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피해 주민들은 해당 업체의 과실이 신속하게 밝혀진 만큼 그동안 입었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내려

진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해당 기업의 2차 피해 등의 이유도 잡작됐다.

결국, 피해를 본 주민들은 수백명이나 되는데, 해당 피해를 유발한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발생 초기 긴급하게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하며며 부산을 떨었던 당국도 ‘할 게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상황을 방관하는 듯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주민들은 울화통을 터트리고 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나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당국의 무신경도 한몫을 한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마지막 양식장에서 2000t에 이르는 바지락이 집단 폐사한 뒤 목포해양대가 원인 규명을 나섰다 실패한 뒤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던 사례까지 떠올리며 속앓이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시 연구진은 ▲폭우나 폭염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폐사 가능성은 작지만 ▲관련성 있는 기업은 있으나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용역에 착수하게 돼 직접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주민들은 “흑비가 내렸는데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카운터 바지락이 폐죽음을 당했는데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부터 30여분간 여수시 울촌면 일원 270ha에 납과 카드뮴 등 300여 성분인 검출된 흑비가 내려 주민 2천여 가구가 농작물 피해를 입고 하천과 토양이 오염됐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이동 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H산업의 제철·제강 과정에서 나온 분진이 초속 4.2m의 강한 동풍을 타고 울촌면 일원에서 비와 함께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화재 때 역할 아느냐” 문자 간호부 직원 “기억 안 난다”

‘장성 요양병원 참사’ 재판 매뉴얼 조차 제대로 몰라 병원 안전불감증 재확인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당 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질 이사장 이모(54세) 등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은 병원의 안전 불감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22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욱현) 심리로 열린 재판은 참사 당일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증인 신문 등으로 진행됐다.

간호부 직원 A씨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비상 매뉴얼상 화재가 났을 때 역할을 아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훈련을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A씨는 “간혹 했는데 3교대라서(근무시간이) 안 맞아 참여하지 못했다. 불나기 전에는 받은 기억이 없고 화재 이를 뒤에 하기로 했지만 화재가 발생해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도, 비상 상황에서 환자들을 구호 조치해야 할 인력들이 매뉴얼조차 숙지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병원의 심각한 안전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연상되는 듯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별관의 경우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해 불이 나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와 맞물려 참사 당시 별관 근무 간호조무사(52)가 본관으로 뛰어가 119 신고를 요청한 뒤 본관 병실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다가 돌아와 소화기를 교체해 다시 뛰어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 대표들의 심정 등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가족대책위 새 집행부 구성 진도 방문

“특별법 입장 변화없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사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전체 총회를 열고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전 집행부를 대신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다.

집행부는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거부 입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집행부는 22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을 만나고 정부 측에 동절기 수색 작업 방법 등을 제거하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새 집행부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사죄하는 한편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받아들이길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유족 350여명, 229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부터 세 시간 넘게 열린 총회에서 유족들은 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집행부 7명을 새로 뽑았다.

재구성된 집행부는 전명선 위원장, 유경근 대변인, 진상규명분과 박종대 파트장, 장래지원분과 최성우 파트장, 심리치료생계지원분과 유병화 파트장, 대외협력분과 김성실 파트장, 진도지원분과 김재만 파트장 등으로 꾸려졌다.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족 5명은 지난 17일 새벽 0시 40분께 서 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김현 의원과 함께 있다가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을 포함한 전 집행부 전원은 같은 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했다. /연철뉴스

3명 사망 새만금 어선 전복 사고 선장 구속

군산해경은 지난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태양호 선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지난달 22일 군산시 신시배수갑문 안쪽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수산업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면세유

사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5개의 혐의가 적어졌다.

당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배수갑문 안쪽 해상에서 불법어업을 하던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졌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가로수 은행 수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도심의 은행도 노랑게 익어 가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22일 용봉동 북구청 사 인근 도로변에서 시민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가로수 훼손을 막기 위해 은행 열매를 수거하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도심의 은행도 노랑게 익어 가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22일 용봉동 북구청 사 인근 도로변에서 시민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가로수 훼손을 막기 위해 은행 열매를 수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미성년 혼숙 자작극 모델주인 협박 갈취

광주광산경찰은 22일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것을 미끼로 숙박업소 주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최초(18)군 등 미성년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A모델 주인 백모(72)씨에게 “미성년자인 백모(16)양이 이 모텔에서 남자들과 혼숙한 것을 알고 있다”며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은 일행인 박양을 A모델에 투숙시킨데 이어 또 다른 일행인 기모(17)군에게 연락해 박양이 투숙 중인 객실에 뒤따라 들어가게 한 뒤 주인에게 찾아가 “미성년자를 혼숙시키면 되겠습니까”고 협박해 현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경우 혼숙이 금지돼 있고 신고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모텔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점 등으로 미뤄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흡친 카드로 담배 사재기

10대 등 2명 붙잡아

광주광산경찰은 22일 차량 안에서 흡친 신용카드로 담배 사재기를 한 혐의(특수 절도)로 윤모(19)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 등은 지난 7월 20일 새벽 3시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B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이모(43)씨의 승용차에서 신용카드 등 2지갑을 훔친 뒤 인근 편의점 10곳을 돌아다니면서 흡친 신용카드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차기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용기자 pboxer@

이동주차 시비 끝 차 유리 파손

○~새벽에 이동 주차를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상대방 승용차 앞유리를 파손한 못된 운전자가 경찰서행.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1)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K한방병원 주차장에서 김모(50)씨의 승용차 앞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이씨는 김씨의 승용차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집에 들어가 잠을 잤었다 나 김씨가 새벽에 전화해 걸자 뒷집에 이 같은 행동은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김씨가)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백희준기자 bhj@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374	1	광산구 도산동 1136-1 호반아파트 상가동 2층 201호 128.0㎡	아파트	123,000,000 123,000,000	
2014타경 11916	1	북구 운양동 1011 운양산아아파트 109동 1층 106호 140.0264㎡	아파트	345,000,000 345,000,000	
2014타경 12636	1	서구 영화로57번길 19, 202동 7층 708호 84.61㎡	아파트	169,000,000 169,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20470	2	화순군 남면 대곡리 204 377㎡ 동소 204 66.49㎡ 제1외의 현관 등 17.8㎡ 동소 205 407㎡ [공유자취합동주택3/13, 박명순, 박래봉, 박원봉, 박현수각지분2/13전부] [매각제외의일반건축물대장상보유등기계좌1층측사, 면적107.58㎡ 및계사소재][물건번호:2지분매각, 공유자취합동주택1회로제한]	일가	29,265,190 29,265,190	일괄매각, 제1외 건물포함, 토지위탁수익분할매각, 목욕2,3공유자취합동주택5/13, 박명순, 박원봉, 박현수각지분2/13전부
--------------	---	--	----	--------------------------	---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20470	1	화순군 남면 대곡리 176-1 1650㎡ [공유자취합동주택3/13, 박명순, 박래봉, 박원봉, 박현수각지분2/13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취합동주택1회로제한]	대	26,180,000 26,180,000	지분매각, 수목포함매각, 현황전일일부도로로이용중
2014타경 7412	1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359 1045㎡ [소하천]	전	6,583,500 6,583,5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9227	1	광산구 삼도동431-3 33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제외의수목, 비닐하우스1개등소재]	대	13,530,000 13,530,000	도시계획시설도로지축
2014타경 9401	1	담양군 용면 추성리 538-2 593㎡ 동소 538-3 2108㎡ [매각제외비닐하우스1동소재]	대	43,216,000 43,21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4타경 13622	1	영양군 대덕면 예산리 835 486㎡ [공유자취합동주택1/4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취합동주택1회로제한]	대	2,843,100 2,843,100	지분매각, 도시계획시설임정도구역에일부지축
2014타경 13622	2	영양군 대덕면 운양리 495 953㎡ [목욕1과지분동일][공유자취합동주택1회로제한]	대	4,264,670 4,264,67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3622	3	동소 496 945㎡ [목욕1과지분동일][공유자취합동주택1회로제한]	대	3,898,120 3,898,12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3622	4	동소 605 1071㎡ [목욕1과지분동일][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도시계획시설임정도구역에일부지축]	대	4,605,300 4,605,300	지분매각, 공유자취합동주택1회로제한
2014타경 13622	5	동소 515 567㎡ [목욕1과지분동일][공유자취합동주택1회로제한]	대	2,338,870 2,338,87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3622	6	동소 608-1 680㎡ [목욕1과지분동일][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취합동주택1회로제한]	대	3,315,000 3,315,000	지분매각, 도시계획시설임정도구역에일부지축
2014타경 13622	7	동소 산 120 30942㎡ [목욕1과지분동일][공유자취합동주택1회로제한]	임야	5,182,780 5,182,780	지분매각, 임목포함매각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4타경 11749	1	동구 현방우로 339, 101동 13층 1303호 [수기통, 채워오피스텔] 60.00㎡	[근린시설]	63,000,000 63,000,000	

[기타]

2014타경 2356	1	곡성군 결면 마전리 1229-1 10820㎡ 곡성군 결면 마전동공길 77 공장동호 1.99 공장 5㎡ 제1외의 기계기	공장용지 기타	1,598,527,000 1,598,527,000	일괄매각, 기계기구목욕포함[일부지분임대1년2동소재]
-------------	---	--	------------	--------------------------------	------------------------------

● 공과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능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상시 매각대금과 산입한다.

② 공유자가 민사합병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용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회피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4. 10. 8.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10. 15.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위치한 가압인양표에 서명번호, 용량의 성명, 주소, 연락처,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봉투에 봉투를 봉투봉투에 넣어 입찰방에 투입하여 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100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된 가압인양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문서[일정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에게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비용을 일정한 추가보증금에 상응하여 정한다.

④ 최고가매수신청인과 저가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회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회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회기일에는 확정된 대금지급금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회기일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회기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회기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회기 및 지정회기, 매각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담은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회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 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분권, 가압부담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권이나 가압부담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증 및 등록세영수필증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상환보증금 기한인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의존자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회 목적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 하고 그 후 거주하고 있는 위치인이나, 사회자등본상 기재된 위치인이나 있을 때에는 그 양자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일반인등의 청약이 완료되기 위하여 매각회기 1주일 전부터 매각회기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등기서 등의 사본 등을 우편방에 민사합병(신청)과에 비치하여 청약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청약의 결과를 문의한 후 입찰하여야 한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세운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입찰방에 나오는 설명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소요되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청약장을 반드시 입찰방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하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⑥ 공고된 물건의 매각회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 제외된다.

⑦ 신청을 공고하는 물건의 매각회일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매각회기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하면 계산된 공고나 변경에 따라진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한다.

⑨ 매각회 결과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방문공고 → 방문판매정보]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열람정보는 법률상 제공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열람이 불가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회기 신청이나 항고, 승복신청 등 민사합병(신청)에 관하여 할 수 없으므로, 항상이는 물건의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계시는 매각회일의 공고나 비하진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9. 2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선주대